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5년 8월

박사학위 논문

#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의 토익에 대한 인식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윤 용 배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의 토익에 대한  
인식 연구

A Study on EFL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about  
TOEIC

2015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윤 용 배

#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의 토익에 대한 인식 연구

지도교수 김 경 자

이 논문을 문학박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윤 용 배

## 윤용배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u>김기석</u>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u>조동욱</u> (인)
위원	광주대학교	교수	<u>이비강</u> (인)
위원	광주여자대학교	교수	<u>김경호</u>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u>김경자</u> (인)

2015년 6 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Abstract .....	iv
<b>I. 서론</b> .....	1
1.1 연구의 필요성 .....	1
1.2 연구의 목적 .....	3
1.3 연구 문제 .....	3
1.4 논문의 구성 .....	4
<b>II. 이론적 배경</b> .....	5
2.1 TOEIC의 개요 .....	5
2.2 TOEIC의 실용성 .....	6
2.3 선행연구 .....	10
2.3.1 영어학습자의 토익에 대한 인식 .....	10
2.3.2 전공 계열별 토익에 대한 인식의 차이 .....	12
2.3.3 점수별 토익 인식의 차이 .....	12
<b>III. 연구 방법</b> .....	14
3.1 연구대상 .....	14
3.2 연구도구 .....	15
3.3 자료수집 방법 .....	15
3.4 자료분석 방법 .....	16
<b>IV. 연구결과 및 논의</b> .....	17
4.1 영어학습자들의 토익 인식에 따른 요인분석 .....	17
4.1.1 토익의 실용성 .....	18
4.1.2 토익과 영어실력 향상 .....	19

4.1.3 토익 학습방법 .....	20
4.1.4 토익의 토대가 되는 기초영어 실력 .....	22
4.1.5 토익점수 향상 .....	23
4.1.6 토익수업 효과 .....	26
4.1.7 영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	27
4.2 영어학습자들의 전공 계열별 토익에 대한 인식의 차이 .....	28
4.3 영어학습자들의 토익 점수별 인식의 차이 .....	29
<b>V. 결론</b> .....	31
5.1 연구요약 .....	31
5.2 교육적 함의 .....	33
5.3 연구의 제한점 .....	35
5.4 후속 연구 제언 .....	36
<b>참고문헌</b> .....	38
부록 1. 최근 5년간 연령별 토익 시험 응시자 현황 .....	41
부록 2. 국가고시 토익 성적 이용현황 .....	41
부록 3. 주요기업의 ‘탈 스펙’ 채용 .....	42
부록 4. 한국 대학생 영어 학습자들의 토익 인식에 관한 설문지 .....	43

## 표 목 차

표 1 연구 참여자에 대한 정보 .....	14
표 2 토익 응시경험 및 응시 횟수 .....	15
표 3 토익의 실용성 .....	19
표 4 토익과 영어실력 향상 .....	20
표 5 토익 학습방법 .....	21
표 6 토익의 토대가 되는 기초영어 실력 .....	23
표 7 토익 점수 향상 .....	24
표 8 토익수업 효과 .....	26
표 9 영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	27
표 10 전공 계열별 토익에 대한 인식의 차이 .....	28
표 11 토익 점수별 인식의 차이 .....	30



## ABSTRACT

### A Study on EFL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about TOEIC

Yoon, Yeong-Bea

Adviser : Kim, Gyung Ja, Ph.D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Korean EFL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about TOEIC and identified the differences in their perceptions based on their study areas and TOEIC scores. Furthermore, the study attempted to provide pedagogical insights into general TOEIC instruction with students of diverse study majors and TOEIC levels of proficiency. To these ends, 380 students at three universities participated in the study. A self-report questionnaire was used to measure the students' thoughts about TOEIC. The questionnaire contained 39 items in a 5-point Likert scale (1=strongly disagree, 5=strongly agre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factor analysis, and *t*-tests.

Results identified seven factors in the students' perceptions about TOEIC: *Practicality of TOEIC*, *TOEIC and improving English skills*, *ways to study TOEIC*, *basic English proficiency for TOEIC skills*, *ways to improve TOEIC scores*, *effectiveness of TOEIC instruction*, and *general perceptions about English learning*. The participant students were divided into two sub-groups by their major in order to

investigate effects of study areas: humanities vs. science and engineering. The results showed that the differences only in *basic English proficiency for TOEIC skill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 $t=2.495$ ,  $p=.013$ ). The student participants also divided into two groups in terms of their scores on the TOEIC tests: higher vs. lower. The higher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on the items about *ways to improve TOEIC scores* than the lower group ( $t=-2.475$ ,  $p=.014$ ). Based on the findings teaching implications and directions for further studies were suggested.

# I.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국제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영어는 국제회의나 무역 등의 영역에서부터 일상적인 회화 부분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공용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보화, 세계화 등의 세계적 변화 속의 중심으로 영어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현재 이러한 영어에 대한 관심은 여러 가지 영어 시험의 높은 참여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 시험들 중 토익(TOEIC: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이 그 선두 주자라고 말할 수 있다.

영어 의사소통 능력 측정을 목표로 하는 토익은 지구촌시대에 국제인으로서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즉, 언어의 네 기능에 해당하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언어 능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통합적이고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토익은 문법지식, 학문수행 능력, 문학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영어기능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실생활에서 구사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측정하도록 고안된 평가유형이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취업준비를 위해 영어실력을 평가하는 가장 보편화된 수단중의 하나인 토익점수를 높이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며, 직장인 뿐 만 아니라 심지어는 중, 고등학생 사이에도 토익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여 시험 응시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부록 1 참조). 우리나라 응시자들의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학생이 49%로 가장 많았으며 회사원(26%), 대학원생(5.6%), 고등학생(2.3%), 중학생(1.1%) 순으로 나타났다(이효웅과 박기표, 2003). 대부분의 기업체에서도 국제화 시대에 꼭 필요한 영어능력의 평가기준으로 토익을 활용하고 있다.

2013년까지 누적 응시자수가 2,800만 명에 이르고, 2013년 한 해 응시자수는 200만명을 넘어섰다. 또한 2013년 전체 응시자 중 절반이 훨씬 넘는(69%) 응시자의 연령대가 20-25세(대학 재학생)로 나타났다. 한국 TOEIC

위원회에 따르면, 매년 취업준비생의 토익 응시인원은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상반기의 경우 정기토익 응시자 102만여 명 중에서 취업준비생이 45만여 명으로 전체 응시자의 44.6%를 차지했다.

현재 토익은 학습자들의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기업의 취업 시 서류전형 자료로서, 사법고시, 행정고시 등과 같은 국가고시와 회계사, 세무사 등의 국가자격증의 영어 과목 대체 영어시험으로 활용되고 있다(부록 2 참조). 이와 반대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토익점수를 배제하는 기업체도 나타나고 있다(부록 3 참조). 이렇듯 토익은 대학 졸업 후 학습자들의 취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기에 많은 대학들이 교양 영어 교과목에 토익과목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학습자들의 토익점수 향상은 물론 영어능력을 기르고자 노력하고 있다.

취업을 위한 대학교육의 실용적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각 대학들도 토익 점수로 졸업인증제를 실시하거나 교양필수과목으로 토익강좌를 개설하는 등 토익을 중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신광인과 오치성, 2012). 대다수의 지방대학의 경우 수도권 대학에 비해 입학 당시 영어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시에는 수도권 대학의 학생들과 같은 수준이 요구되므로 취업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들 중의 하나인 영어능력을 증진하는 것이 지방대 학생들의 경쟁력을 기르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토익 응시자들 중 대학생 수가 두드러지게 높은 것은 토익 점수가 졸업 후 취업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토익 관련 연구들의 경향은 토익점수와 영어능력과의 연관성(이효웅과 박기표, 2003; 지순정과 이상도, 2009)과 토익수업의 효과성(남정미와 김성애, 2009; 신광인과 오치성, 2012; 주미진, 2009)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생들의 토익 점수 향상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토익 수업 개발 및 운영에 대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효과적인 토익 수업 개발과 운영을 위해서는 토익 수업을 구성하는 주체인 학생들이 토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수업 개발과 운영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토익 인식에 대한 선행

연구의 이런 미흡한 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본 연구는 토익 수업을 구성하는 주체인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이 토익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의 전공 계열별, 토익 점수별 토익 인식에 대한 분석은 앞으로 대학 토익수업 현장에서 교수자들에게 유익한 학습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결과는 토익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자, 그리고 교재 개발자들에게 학생들이 토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토익 학습방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단서들을 제공하리라 생각된다. 이를 바탕으로 토익 수업 및 교재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토익을 준비하는 학습자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 갈 수 있는 수업과 교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이 토익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토익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점검해 보고 토익의 실용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생들의 토익에 대한 인식에 전공 계열별 차이와 토익 점수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교양과목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토익수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1.3 연구 문제

본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대학생들의 토익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2. 토익에 대한 인식에 전공 계열별(인문 vs. 이공계열) 차이가 있는가?
3. 토익에 대한 인식에 토익 점수별 차이가 있는가?

## 1.4 논문의 구성

이 연구를 위해 제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TOEIC의 개요, TOEIC의 실용성,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의 토익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에 대해 정리한다. 제 3장에서는 연구문제를 이행하기 위한 연구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 4장 연구 결과 및 논의에서는 영어학습자들의 토익 인식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연구 참여자의 전공 계열별, 토익 점수별 인식차이에 대하여 논의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연구요약을 하고 교육적 함의를 간단히 정리하고,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 제언에 대해 기술한다.

## II. 이론적 배경

### 2.1 TOEIC의 개요

토익은 언어의 본래 기능인 의사소통 능력에 중점을 두고 일상생활과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업무 등에 필요한 실용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즉, 학습자들이 학교에서 배운 문법, 어휘, 독해 등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는 다른 시험들과는 달리 토익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의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평가를 목표로 하는 시험이라 할 수 있다. 토익은 일상생활 및 비즈니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기에, 시험 문항들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들과 다양한 표현들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 시험 문항은 일상생활, 비즈니스, 제조 분야, 인사, 여행 등과 같이 각기 다른 환경과 상황을 중심으로 응시자의 의사 소통 능력을 측정하며, 듣기영역(Listening Comprehension)과 읽기영역(Reading Comprehension)으로 구분하여 각각 100문항씩 990점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영어 능력 측정도구로 토익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조사한 연구를 바탕으로, 주미진(2009)은 토익 수업에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을 접목하여 학생들의 토익 수업에 대한 반응과 수업의 효과성을 살펴보았다. 학생들은 전통적인 수업 방법을 사용하는 토익 수업보다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을 사용하는 토익 수업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나, 특정 교수법이 학생들의 토익 성적 향상과는 연관성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남정미와 김성애(2009)는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토익 수업의 효과성에 대한 기존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여,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토익 수업의 효과성에 대해 조사하였고 온라인으로 시행되는 토익 수업의 경우, 독해보다는 듣기부분이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토익 수업이 학생들의 만족도나 수업의 효과성과 관련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큰 차이점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기존의 토익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

고 토익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하나는 영어 능력 측정도구적인 측면에서 토익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조사하였고(이효웅과 박기표, 2003) 다른 하나는 영어 학습 향상의 방편적인 측면에서 토익을 활용한 수업의 효과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미진(2009)의 경우, 학습자들의 토익과 토익수업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가 토익과 토익수업에 대한 인식에 중점을 두고서 개발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습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설문문항(이명관, 2006)과 독해전략과 독해능력에 대한 설문 문항을 참고하여 사용하였다. 주미진(2009)의 연구는 비록 분석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측정도구 측면에서 제한적이기는 하나, 토익 수업의 효과성과 관련한 향후 연구에서 학습자들의 토익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학습자들의 토익에 대한 반응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미진(2009)의 연구를 좀 더 확장하여 성장섭(2012)은 대학생 학습자들의 토익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질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의 토익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 문항 작성하였으나 탐험적인 조사를 통해 학습자들의 토익에 대한 인식을 서술적인 측면에서만 살펴보았다. 하지만, 영어 학습 향상의 토익수업의 효과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토익 시험뿐만 아니라 토익 수업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학습자들의 토익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한 선행연구의 수와 연구 범위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토익과 토익 수업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이러한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 영어 학습자들의 토익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에 대해 살펴보하고자 한다.

## 2.2 TOEIC의 실용성

토익의 본래 목적이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업무에 필요한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개개인의 전반적인 영어능력평가의 척도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토익시험이 다른 영어시험들과 구별되는



점은 ‘지식’이 아니라 영어의 ‘기능과 실용성’을 측정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다른 영어 시험들은 수험자가 학교에서 배운 문법, 어휘, 독해 등에 관한 지식을 측정하는데 반해, 토익시험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의 영어의 기능 실용성을 측정목표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토익시험은 영어의 네 가지 기능인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의 종합적인 구사능력을 측정해서 학습자가 국제무대에서 어느 정도로 유창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개발된 시험인 것이다.

하지만 토익 점수로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될 수 있다. Childs(1995)는 토익의 표준 점수편차가 미국 교육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수치보다 훨씬 크고, 이것은 결국 개인의 언어능력 발전정도를 반영하는 척도로 보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Hirai(2002)는 토익이 개인의 구어체와 문어체 모두에 걸쳐 영어구사력을 예측하는데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하였고, 토익을 의사소통 능력의 예측 수치로 보기에 매우 미흡하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정수선(2001), 최동석(2002)은 토익성적이 높다고 영어를 잘 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주장한다. 과거와는 달리 글로벌시대의 우리 사회에서 ‘영어 잘 한다’는 말의 의미와 그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순정과 이상도(2009)는 토익 성적이 영어실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토익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서도 많은 경우 비즈니스현장에서 필요한 영어실무를 적절히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토익시험이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토익 성적에 대한 비중을 점점 낮추는 이 유도 여기에 있다고 기술하였다.

토익의 평가와 관련한 연구로는 정행(2010)의 개정된 토익이 한국 대학생들의 영어 교수·학습에 미치는 역류효과에 대한 연구와 이효웅과 박기표(2003)의 토익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특히 정행(2010)의 연구는 평가가 학습자의 능력평가의 측정 도구로서 뿐 아니라 학습 내용과 방법에도 영향을 미치는 역류효과에 대한 연구로서 개정된 토익의 유형에 대하여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의 전략과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토익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기업들이 신입사원 선발 시 토익성적에 대한 비중을 낮추고 토익 스피킹, 오픽(OPIC), 영어면접 등 영어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익은 현재까지는 가장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영어능력 평가 수단이다. 토익은 현재 대학 입학 시 외국어 특기자 전형의 기준이 된다거나, 대학에서 장학생이나 해외연수 선발의 기준 또는 졸업인증제에도 이용되고 있다. 또한 국가고시 및 각종 국가자격증의 영어 과목 대체 시험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법고시, 행정고시, 기술고시, 입법고시 등의 국가고시와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등의 국가 자격증 시험이 토익성적으로 영어 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시험들이다(부록 3 참조). 군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9급, 7급, 5급에 대한 기준성적의 차이를 두어 토익성적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듯 토익성적은 공인성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고, 대학생들의 취업과도 직결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많은 대학들은 교양필수 영어 과목으로 토익을 도입하고 있다.

대학 졸업 후 사회 진출을 위한 필수요소 중의 하나로 간주되는 토익의 사회적 요구의 증가에 따라 대학들은 토익과 같은 공인영어성적을 높여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방과 후 토익특강이나 방학 중 토익특강 등이 많은 대학들에서 개설되고 있다.

또한 대학들은 졸업인증, 학점인정, 장학금 지급, 해외연수자 선발 등에 토익을 평가기준으로 활용했다. 구체적인 토익 활용현황을 보면 졸업인증은 74개교에서 99개로, 학점인정은 2013년 42개교에서 2014년 61개교로, 장학금 지급은 76개교에서 105개교로, 해외연수자 선발은 57개교에서 79개교로 크게 늘었다.

유형별 토익 활용사례를 살펴보면 토익 점수를 졸업인증 요건으로 활용하는 대학들은 학과에 따라 다르나 대부분 600점 이상을 요구했으며, W과학기술대는 전체 학생들에게 800점을 졸업인증 요건으로 제시했다. 학점인정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토익 취득점수에 따라 성적이 다르게 매겨지도록 했다. 토익점수를 장학금 지급 기준으로 삼은 대학 중 C대, G대, Y대, N대 등 많은 대학들도 토익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화해 지급했다. 해외연수자 선

발 시 대학들은 대부분 600점 이상의 토익 성적을 요구했고, H대는 UN 등 국제기구 인턴십에 토익 900점을 요건으로 정했다.

대학들은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교양필수 영어과목에 토익을 도입함으로써 취업률 제고 등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 이제는 공인영어 성적 제출이 취업의 의무사항에 가깝기 때문에 교양 영어 과정에서 학생들의 공인 영어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목이 다루어지고 이것이 전반적인 성적 향상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영어지식과 함께 취업 준비에 대한 학생과 대학의 부담을 동시에 덜어주는 일거양득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토익과 수능 영어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왔는데 이는 현재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토익으로 신입생들의 입학 및 재학생들의 영어능력을 인증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남정미, 김성애(2009)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양영어 교과목으로 온라인 토익수업의 효과와 학습자의 경험과 의견을 조사하였다. 온라인 토익수업의 효과는 진단 평가와 기말평가 두 시험 결과를 비교했을 때 듣기부분에서 특히 도움이 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학습자의 만족도와 반응은 그리 높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국가와 대학의 정책적 영향 하에 대학생들도 토익 고득점이 성공적인 졸업과 취업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을 갖고 토익 점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토익에서 높은 문항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법의 경우, 대학생들은 교수자의 명시적 문법 설명을 희망하고 문법 지식 습득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문법 항목에 대한 단편적인 설명과 연습위주의 문법수업에 대해서는 낮은 만족도와 부정적 시각을 나타낸다(신희재, 2011). 대학생들의 토익에 대한 학습동기 저하는 결국 시험점수는 물론 전반적인 영어능력 향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업방법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취업 촉진을 위한 교양영어 토익수업에서 대학생들의 토익점수를 향상시키는 교수법과 효율적인 학습방안이 수행된다면 참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토익교수와 학습에 도움을 주기위해 토익점수 향상과 관련된 구체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토익에 대한 대학과 학습자의 기대와 요구는 실제적으로 수업을 지도하는 교수자에 대한 역할과 기대로 이어진다. 그러나 교육현장의 교수자조차도 토익 수업목표를 시험성적 향상과 의사소통 능력향상 중에 어디에 두어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다(신광인과 오치성, 2012). 이러한 가운데 최근까지도 강의식 교수법으로 가르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주미진, 2009), 단기적 토익 문법 교수의 측면에서는 전통적 수업이 학습자의 토익문법 점수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Shin과 Seong, 2011)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 2.3 선행연구

### 2.3.1 영어학습자의 토익에 대한 인식

최근 대학교육 과정에서 실용적인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대학의 영어교육과정에 토익 관련 과목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여러 선행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인 토익에 대한 인식, 계열별 인식 차이, 토익 점수별 인식차이에 대한 선행연구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토익 수업의 효과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토익 시험뿐만 아니라 토익 수업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학습자들의 토익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대한 선행 연구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신동일과 김주연(2010)은 토익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11명의 수험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했다. 토익에 관한 각자의 개인적 경험과 반응을 종합해보면 토익은 졸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수험자의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간단하게 토익과 토익 준비에 관한 수험자들의 인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토익은 ‘제도권’시험이었다. 그들은 ‘제도권’에 안착하기 위해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야 하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토익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시대에서 제도화된 토익시험성적은 취업에 필요한 ‘스펙’이었고, 자신을 선발하고 성실성마저 평가하는 ‘척도’이면서, 입사

자격을 선별하는 ‘문지기’였다. 둘째, 토익은 단순히 졸업과 취업을 위한 도구적 맥락을 벗어나서 ‘영어’의 위상을 유지하고 세상에서 ‘출세’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까지 인식되고 있었다. 셋째, 토익 시험을 준비하는 일상은 연구 참여자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기반이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시험공부가 능숙도를 향상시키기 보다는 단순한 ‘시험응시전략’을 학습할 뿐이라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능숙하게 영어를 잘하기 위한 ‘초석’이라는 긍정적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성창섭(2012)은 학습자들이 토익을 영어능력 검증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졸업 후 취직을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학교와 사회에서 토익 점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토익을 준비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습자들이 토익을 대하는 태도가, 영어 능력 검증이라는 토익의 원래 목적과는 아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학습자들의 토익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향후 토익 수업 및 교재 개발과 관련하여 교수자나 연구자들에게 교수적인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를 시사한다. 첫째, 학습자들이 토익을 취업 수단으로 인식하는 이상, 실질적인 영어 능력 향상이라는 목적으로 개발된 토익 수업 및 교재는 학습자들의 토익에 대한 이러한 인식에 부응하지 않기 때문에, 수업 및 교재의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다. 둘째, 영어 교수자나 교재 개발자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토익 수업과 교재 개발을 위해서는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내용과 아울러 학습자들의 토익에 대한 인식을 만족시키는 내용을 반영하는 수업과 교재를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명, 홍광희와 황규홍(2013)은 부산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62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토익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요인분석 결과, 학생들은 토익에 대해 (1) 영어능력 향상 도구, (2) 사회적 요구 충족, (3) 토익이외 학습의 필요성, (4) 시간적인 노력의 필요성, (5) 점수에 대한 부담감, (6) 점수가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 그리고 (7) 학습 방법의 효과성과 같이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토익을 단순히 자신의 영어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해 볼 수 있는 영어 시험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사회/문화적인 측면까지 반영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토익 시험의 연장선으로 생각하며 토익을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나 기업에

서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키기 대상으로 토익을 이해하고 있고(요인 2: 사회적 요구 충족) 토익 학습은 혼자서 하는 것 보다는 학원이나 그룹 스터디를 통해서 학습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요인 7: 학습 방법의 효과성)하는 부분은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 2.3.2 전공 계열별 토익에 대한 인식의 차이

주미란(2012)은 대학 신입생의 전공 및 학습 성과별 학습전략을 연구하였는데 토익점수를 근거로 상위와 하위 학습자 각 40명으로 구분하였다. 두 그룹의 학습전략 사용 정도는 차이가 있었으나 학습전략은 보상전략, 상위인지 전략, 인지전략, 기억전략, 사회적 전략, 정의적 전략의 순서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결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영지와 이정민(2011)은 공대생들의 TOEIC 점수 평균은 622.96점으로 기본적인 영어실력이 높지 않다고 보았다. 공대생(93명)의 토익점수가 인문대생(123명)과 자연대생(70명)에 비해 가장 낮았다(인문대: 715.09점, 자연대: 634.58점, 공대: 622.96점). 특히 TOEIC이 제공한 능숙도 기술표(Proficiency Description Table)에 따르면, 공대생의 듣기는 중급 정도(공대: 307.78점, 인문대: 364.27점)에 해당이 되며, 읽기 수준 또한 중하급 레벨을 나타낸다고 보았다(공대: 316.59점, 인문대: 354.95점).

### 2.3.3 토익 점수별 인식의 차이

토익점수와 관련하여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학습전략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미영(2007)은 의사소통중심 영어학습자와 토익중심 영어학습자의 학습전략을 비교했다. 35명으로 이루어진 두 그룹을 비교한 결과 토익학습자들의 정의적 전략과 인지전략의 평균점수가 5점 리커트 척도에서 3점에 이르지 못했다. 정의적 전략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어에 관련된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자신감이 생기게 해야 한다. 인지적 전략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어를 학습하고 직접 사용해 보는 것이 중요하며 새로운

표현을 몇 번씩 말하거나 써보기, 원어민처럼 말하려고 노력하며 영어발음 연습하기, 여러 사람들과 영어로 대화하기, 영어 TV 프로그램, 영어로 된 영화 보기, 영어책을 읽으며 간단하게 영어로 글을 써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승호(2007)는 한국 대학생의 영어 학습전략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토익 문법파트에 근거하여 영어능력 수준을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영어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두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상위집단의 경우 상위인지, 보상, 기억, 인지, 정의, 사회 전략의 순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하위집단의 경우 보상, 상위인지, 기억, 인지, 정의, 사회 전략의 순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의 전략 사용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영어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전략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사용정도가 가장 낮은 사회적 전략과 정의적 전략을 중점적으로 지도하여 학생들의 영어학습에 대한 어려움과 자신감의 결여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보상전략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의식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면서 영어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보상전략을 함께 활용해야 하며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에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전략을 중심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미란(2012)은 대학 신입생의 전공 및 학습 성과별 학습전략을 연구하였는데 토익점수를 근거로 상위와 하위 학습자 각 40명으로 구분하였다. 두 그룹의 학습전략 사용 정도는 차이가 있었으나 학습전략은 보상, 상위인지, 인지, 기억, 사회, 정의 전략의 순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지순정과 이상도(2009)의 연구에 따르면 영어능력의 상 집단에서는 듣기와 읽기의 두 능력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반면 하 집단에서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 Ⅲ. 연구 방법

####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C 대학교 226명, K 대학교 84명, S 대학교 52명 3개 대학교와 순천에 소재한 J 대학교 32명, 총 394명의 대학생들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설문에 응한 대학생 중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았거나, 하나의 척도에 모든 문항을 응답하여 척도별 점수가 산출되지 않은 대상자를 제외한 총 380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은 인문 계열과 공학 계열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주를 이루었다. <표 1>에 나타난 것처럼, 남자( $n=200$ ) 53%, 여자( $n=180$ ) 47%가 구성되었다. 인문계열( $n=209$ )은 경상대학( $n=117$ ), 인문사회대학( $n=77$ ), 법학대학( $n=15$ )등으로 설문지 응답자의 55%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이공계열( $n=171$ )은 공과대학( $n=106$ ), 자연과학대학( $n=13$ ), 치과의학대학( $n=52$ )등으로 설문지 응답자의 45%를 차지하였다. 1학년( $n=253$ ) 67%, 2학년( $n=53$ ) 14%, 3학년( $n=28$ ) 7%, 그리고 4학년( $n=46$ ) 12%로 설문에 응한 대학생 중 1학년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에 대한 정보

성 별		계 열						학 년			
		인문계열			이공계열			1	2	3	4
남	여	경상	인사	법학	공과	치의학	자연				
200	180	117	77	15	106	52	13	253	53	28	46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설문에 참여한 대학생 중 183명(48%)은 아직 토익 응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토익 응시 경험이 있는 대학생 197명(52%)이 토익응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토익응시 평균횟수는 약 3회( $M=2.63$ ,  $SD=2.18$ )이며, 평균 토익 점수는 556점이다( $SD=127.83$ ). 응시횟수에서는 1회( $N=110$ ), 2회( $N=36$ ), 3회( $N=27$ )순으로 나타났으며, 응시횟수



가 9회 이상 되는 설문지 응답자도 8명이나 되었다.

〈표 2〉 토익 응시경험 및 응시 횟수

응시경험			응시 횟수									
있다	없다	모의토익	1	2	3	4	5	6	7	8	9이상	
197	183	32	110	36	27	8	5	1	1	1	8	

### 3.2 연구도구

한국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의 토익에 대한 인식에 관한 설문지는 2개 파트(Part) 총 39문항으로 작성되었다. 신상정보에 관한 8개 문항과 설문지 파트 1(25문항)은 성장섭(2012)과 이동명 외 2인(2013)이 사용한 설문지 35문항에서 의미가 중복되거나 부정형 설문지 10문항을 뺀 25문항을 설문지로 작성하였다. 파트 2의 14문항은 한국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의 토익수업과 일반 영어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학생들의 신상정보와 관련한 문항은 학과, 학년, 성별, 토익응시 경험과 횟수, 토익 공부를 한 기간, 일일 평균 토익 공부 시간과 가장 최근에 본 토익 성적에 대해 조사를 하였고, 토익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5-point Likert scale,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작성되었다.

### 3.3 자료수집 방법

영어학습자들의 토익에 대한 인식 연구에 대한 설문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교양필수인 대학영어 시간에 자료 수집을 하였고, 설문지 응답은 20분이 소요되었다.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C 대학교 226명과 S 대학교 52명 총 278명은 연구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였고,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K 대학교 84명과 순천에 소재한 J 대학교 32명 총 116명은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자에게 연구목적과 설문 응답 방법을 설명하고 자료 수집을 하였다.

### 3.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양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SPSS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연구대상 대학생들의 토익에 대한 인식 요인 별로 신뢰계수(Cronbach's alpha)를 산출하였다.
- 2)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적용하여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을 자료정리 과정을 통하여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의 토익에 대한 인식 요인을 추출하였다.
- 3) 기술통계학(descriptive statistics)을 사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및 빈도수와 백분율 분석을 통하여 대학생들의 토익에 대한 인식의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 4)  $t$ -검증( $t$ -test)을 실시하여, 연구 참여 대학생들의 전공 계열별(인문계열 vs. 이공계열)과 TOEIC 점수별(상위그룹 vs. 하위그룹) 토익에 대한 인식차이를 분석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논의

### 4.1 영어학습자들의 토익 인식에 대한 요인분석

토익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대학생들의 설문 응답을 바탕으로 설문 문항에 대한 요인 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요인 분석 결과는 총 39개의 문항에서 7개의 요인을 추출하였고, 추출된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요인은 7개 문항이 부하되었으며, 제 1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이 “토익은 사회에서 요구하기 때문에”(2번), “토익성적 제출이 취업에 유리”(18번)등 대학생들이 토익시험을 사회적 요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토익의 실용성*이라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5개 문항이 부하되었으며, 제 2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이 “토익은 영어 능력 향상에 도움”(13번), “토익문제를 많이 푸는 것은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23번), “토익은 열심히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시험”(25번)등 토익은 열심히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시험으로 인식에 관한 것이므로 *토익과 영어실력 향상*이라 정하였다.

세 번째 요인은 4개 문항이 부하되었으며, 제 3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이 “토익은 문제 패턴 연습만 많이 하면 고득점을 얻을 수 있다”(16번), “토익 응시횟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다”(24번), “토익 공부는 대학 입학 후 빨리 시작”(7번)에 관한 것이므로 *토익 학습방법*이라 명명하였다. 네 번째 요인은 3개 문항이 부하되었으며, 제 4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이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토익 공부 이외에 다른 영어공부를 병행”(6번)하고 “단기간에 토익점수 향상을 위해서는 영어의 기본실력이 있어야 한다”(22번)에 관한 것이므로 *토익의 토대가 되는 기초영어 실력*이라 정하였다. 다섯 번째 요인은 5개 문항이 부하되었으며, 제 5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이 “토익공부는 장기간에 꾸준히 해야 점수를 올릴 수 있다”(9번), “토익공부를 할 때 그룹스터디를 해야 한다”(11번)에 관한 것이므로 *토익 점수 향상*이라 명명하였다.

여섯 번째 요인은 8개 문항이 부하되었으며, 제 6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이 ‘토익수업이 독해능력 향상에 도움’(29번), “토익수업이 영어 실력에 도움

“(28번), ”토익수업을 통해 나는 영어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31번), ”토익수업을 통해 나는 스스로 영어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30번)에 관한 것이므로 토익수업 효과이라 정하였다. 일곱 번째 요인은 6개 문항이 부하되었으며, 제 7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이 “나는 영어를 잘하고 싶다”(37번), “영어를 배워서 외국인과 의사소통하고 싶다”(39번), “나의 미래를 위해 영어가 중요하다고 생각”(36번),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영어를 배우는 것이 중요”(35번)에 관한 것이므로 영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라 명명하였다.

#### 4.1.1 토익의 실용성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학생 영어 학습자들의 토익인식에 관한 설문지 요인분석의 토익 실용성 파트에서는 “토익은 사회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치는 것이다”(2번)와 “토익성적 제출이 취업에 유리하다”(18번)에서는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서 똑같이 87%로 토익의 실용성 파트에서 매우 높게 나왔다는 사실이다. “토익은 취업을 하기 위한 수단이다”(1번)도 83%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는 강한 긍정의 반응을 보여줬다.

“토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3번)에서도 71%를 나타낸 것과 같이 전반적으로 대학생 토익 학습자들이 “토익점수가 취업에 필수적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생들의 이런 태도는, 토익과 사회적 요구와의 관련성에 대한 질문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토익은 학습자의 영어 능력 자체보다는, 시험 문제를 푸는 요령이 고득점을 좌우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약 75%의 학생들이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표 3〉 토익의 실용성

설문문항	1*	2	3	4	5	M	SD
2. 토익은 사회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치는 것이다.(788).	1**	3	9	37	50	4.32	0.833
1. 토익은 취업을 하기 위한 수단이다.(785).	1	4	12	33	50	4.26	0.895
3. 토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703).	4	7	18	33	38	3.93	1.096
18. 토익성적 제출이 미제출보다 취업에 유리하다(.630).	2	2	9	29	58	4.41	0.852
15. 토익점수에 따라 졸업 후 사회적 지위가 달라진다(.565).	3	14	29	36	18	3.53	1.042
4. 토익은 문제 푸는 요령이 점수를 좌우한다(.521).	1	4	20	42	33	4.01	0.888
20. 토익 점수는 영어실력을 평가하는 가장 보편화된 시험이다 (.402).	2	9	30	38	21	3.66	0.974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 백분율을 나타낸다.

#### 4.1.2 토익과 영어실력 향상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토익과 영어실력과의 상관관계 설문지에서 “토익은 영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13번) 와 “토익은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5번)에서 49%와 47%이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토익점수가 높다는 것은 영어에 대한 기본능력이 있다는 것이다”(14번)에서는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63%나 가장 높게 답하였다. 이것은 대학생 토익 학습자들이 어느 정도 토익이 영어능력, 어휘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13번, 5번, 23번, 25번에서 “보통이다”라는 답변에 35%, 36%, 34%, 35%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대학교에서 토익을 가르치는 교수자들이 대학생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토익을 통한 실력 향상방법, 문법과 어휘강조를 통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자연스럽게 토익을 통한

영어실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강조해야 한다.

〈표 4〉 토익과 영어실력 향상

설문문항	1	2	3	4	5	M	SD
13. 토익은 영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826).	3	13	35	40	9	3.37	0.940
5. 토익은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752).	5	12	36	32	15	3.41	1.047
14. 토익점수가 높다는 것은 영어에 대한 기본능력이 있다는 것이다(.690).	1	10	26	49	14	3.65	0.881
23. 토익문제를 많이 푸는 것은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554).	1	9	34	41	15	3.62	0.883
25. 토익은 열심히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시험이다(.473).	2	7	35	38	18	3.64	0.909

#### 4.1.3 토익 학습방법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토익 학습방법 설문지에서 “토익 응시횟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다”(24번)에서 38%가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에 답변하였고 35%이 “보통이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대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토익 응시 경험도 적을 뿐 아니라 응시 횟수도 전혀 없는 학생들이 많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사료된다. “토익 준비를 위해서 토익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다”(19번) 무려 54%가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다”에 답변하는 것으로 봐서 토익준비를 위해 토익에만 집중하는 것에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토익은 문제 패턴 연습만 많이 하면 고득점을 얻을 수 있다”(16번)과 “토익 공부는 대학 입학 후 빨리 시작해야 한다”(7번)에서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각각 66%, 62%로 높게 나타났다. 토익 교수자가 대학생 학습자를 지도할 때에는 토익의 출제 패턴과 경향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시키고 모의토익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서 자주 보게 함으로써 토익성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표 5〉 토익 학습방법

설문문항	1	2	3	4	5	M	SD
24. 토익 응시횟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다(.712).	8	29	35	21	7	2.89	1.051
19. 토익 준비를 위해서 토익에 만 집중하는 것이 좋다(.708).	17	37	31	11	4	2.47	1.016
16. 토익은 문제 패턴 연습만 많 이 하면 고득점을 얻을 수 있다 (.661).	1	6	27	46	20	3.77	0.864
7. 토익 공부는 대학 입학 후 빨 리 시작해야 한다(.453).	3	10	25	34	28	3.75	1.062

효과적인 토익수업 방법이나 사례에 관한 연구로 김인철(2005)의 대학 교양영어 교육에서 사이버 교육을 통한 토익 활용 사례 연구, 이명관(2011) 토익독해 수업에서 문법 강조와 어휘 강조의 효과 연구, 주미진(2009)의 의사소통중심 교수법을 이용한 토익수업의 효과성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김인철(2005)의 연구는 대학의 교양영어 과정으로 온라인 수업에 토익 강의를 활용한 사례로, 토익을 대학 영어교육에 적용한 것은 토익점수 향상이라는 실용적 목적과 영어능력 향상이라는 영어 교육 본래의 목적에도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명관(2011)의 연구에서는 토익독해 수업에 문법 강조와 어휘 강조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 문법 강조의 효과가 점수 향상에 더 큰 영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미진(2009)의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을 이용한 토익 수업의 효과성 연구에서, 교수법에 따른 통제반과 실험반의 점수 향상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고 오히려 학습자들은 교수법과 상관없이 한 학기동안의 토익 수업을 통해 점수 향상을 보였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남정미와 김성애(2009)의 멀티미디어 활용을 영어수업의 사례 연구로 교양영어 교과목으로 온라인 토익 수업의 학습 효과에 대한 연구, 신광인과 오치성(2012)의 대학 교양필수 과목으로서의 토익 수업의 효과에 대한 연구, Shin과 Seong(2011)의 교수 전략에 따른 대학 토익 과정의 효과성 연구 등이 있다.

문제인식을 토대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교수전략과 학습활동을 사

용해서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특정 교수법이나 활동을 토익수업에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조사한 연구(주미진, 2009)가 일부 이루어졌다. 그러나 수업효과에 대한 연구결과가 서로 상반되어 후속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문법 지식이 의사소통 능력의 한 요인이며 성공적인 언어학습과 사용을 위한 필수조건(Bardovi-Harlig, 1999)이라는 점과 토익에서 문법에 대한 문항 비중이 높은 사실로 볼 때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문법 교수학습 방법은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학습전략은 교사와 학생의 역할을 증가시킨다. 즉 학습전략은 훈련을 통해 가르칠 수 있다. 학습전략 사용은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행해지는 행동이지만 점차 연습을 통해 전략 사용이 자동화가 된다. 학습전략은 학습을 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고 과업을 달성하고 목표를 성취할 때 사용된다. 또한 이를 통해 자기주도적인 학습태도의 함양을 돕는다. 이러한 학습전략의 특성들은 학습의 안내자로서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며 학습자도 스스로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강미영, 2007).

#### 4.1.4 토익의 토대가 되는 기초영어 실력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토익의 토대가 되는 기초영어 실력을 묻는 설문지에서는 “영어 실력평가를 위해서 토익이 아닌 다른 영어평가가 필요하다”(17번)에서 36%가 “보통이다”로 답하고 54%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답변하였다. 이는 대학생 대부분이 영어실력 평가를 위해서 토익에 대체할 수 있는 영어평가가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어 실력향상을 위해서 토익 공부 이외에 다른 영어공부를 병행해야 한다”(6번)과 “단기간에 토익점수 향상을 위해서는 영어의 기본실력이 있어야 한다”(22번)에서는 각각 66%, 67%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답변하여 긍정적 답변이 월등히 우세하게 집계되었다.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서 토익공부 이외에 다른 영어공부도 병행하고 또한 단기간에 토익점수 향상을 위해서 영어의 기본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낸다.



〈표 6〉 토익의 토대가 되는 기초영어 실력

설문문항	1	2	3	4	5	M	SD
17. 영어 실력 평가를 위해서 토익이 아닌 다른 영어 평가가 필요하다.(709).	2	8	36	34	20	3.64	0.939
6.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토익 공부 이외에 다른 영어공부를 병행해야 한다.(696).	2	4	28	34	32	3.91	0.954
22. 단기간에 토익점수 향상을 위해서는 영어의 기본실력이 있어야 한다.(498).	0	7	26	48	19	3.79	0.831

#### 4.1.5 토익 점수 향상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토익점수 향상에서는 “토익 공부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해야 효과적이다”(8번)이 29%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33%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것과 통합하여 토익공부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해야 효과적인 경우에 부정적이거나 중립적 입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39%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답변한 경우로 봐서 대학생 3, 4학년을 중심으로 토익점수 향상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토익 공부는 장기간에 꾸준히 해야 점수를 올릴 수 있다”(9번)에서는 55%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대답한 경우로 봐서 절반 이상의 대학생들이 토익공부는 단기간 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해야 점수를 올릴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토익공부를 할 때 그룹스터디를 해야 한다”(11번)에서 다른 문항에 비해 “그렇다”에 39%로 매우 높게 응답하였다. 이는 단기간 영어 캠프 때 그룹스터디를 활용하여 대학생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사료된다.

〈표 7〉 토익 점수 향상

설문문항	1	2	3	4	5	M	SD
8. 토익 공부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해야 효과적이다.(785).	5	24	32	24	15	3.19	1.105
12. 토익공부는 혼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760).	5	25	53	14	2	2.82	0.807
9. 토익공부는 장기간에 꾸준히 해야 점수를 올릴 수 있다.(758).	3	14	28	36	19	3.53	1.059
10. 토익공부는 학원의 도움이 필요하다.(655).	5	28	44	17	6	2.91	0.942
11. 토익공부를 할 때 그룹스터디를 해야 한다.(614).	3	13	36	39	9	3.37	0.917

박현숙과 최미옥(2014)은 방학 중 이루어지는 단기집중 영어캠프의 교과과정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해 줄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학기 중에 이루어지고 있는 토익수업과 더불어 전반적인 영어수업에 있어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야 하는지를 시사해준다. 신광인과 오치성(2012)은 토익수업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토익 점수가 향상될수록 듣기 비중이 모든 점수대에서 골고루 높아졌고, 특히 많은 학생들이 포진해 있는 200-400점대에서 듣기 점수 비율이 높아짐을 증명했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학생의 성적향상은 물론 특히 초급자들의 성적향상을 위해서는 듣기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방학 중 단기 영어캠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으나,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학 중 영어 몰입캠프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송정미, 2008; 안경자와 이완기, 2012). 대학생들을 위한 방학 중 단기영어캠프에 관한 연구들도 영어원어민 교수들과 함께 하는 몰입캠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김지혜, 2009; 맹경수, 2009), 방학 중 단기 영어 캠프와 토익성적의 향상간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다룬 연구보다는 영어집중캠프 참여가 학습태도, 학습전략, 또는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나경희, 2010, 2011). 나경희(2010)의 연구는 국내 영어집중캠프의 참가자들의 영어능력과 학습태도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고자 캠프

프 참가자들의 3주간의 기숙형 국내영어집중캠프 참가전후의 토익성적이 비교한 결과 3주후 참가자들의 토익성적이 상승되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보여준다.

정숙희(2014)는 토익수업에서 학습자들은 강의식 수업보다 협동학습을 실시하였을 때 더 긍정적인 인지효과를 경험하고 이것이 학업성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토익점수의 향상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성공적인 토익수업을 위해서는 교수자의 협동학습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토익수업은 강의식수업으로 교수자의 주된 역할은 지식전달이었다. 이에 반해 협동학습에서의 교수자는 집단을 구성하는 일에서부터 집단수행 및 그에 따른 평가 등 협동학습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수자 스스로가 협동학습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나고 학습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보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협동학습을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토익 수업에 응용한 사례들이 보고되었다. 협동학습이 토익 독해 성취도와 자기 효능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였다. 연구자들은 학습자들이 협동학습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고 독해성취도도 향상되었으나, 자기효능감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남미, 강용구와 송해성(2012)은 강의식 수업에 참여한 통제반과 소집단 협동학습을 경험한 실험반이 영어독해력과 자기주도 학습능력 향상에서 차이를 나타내는지 연구하였다. 통제반에 비해 실험반이 독해력과 자기주도 학습능력에서 향상을 보여 협동학습의 긍정적 학습효과가 검증되었다. 유사하게, 이명관(2011)은 협동학습 모형을 적용하여 수업한 뒤 통제반과 비교하여 학업성취도와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실험반은 기말고사에서 통제반보다 높은 성취도를 보였으며 수업만족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교실 환경에서의 협동학습이 전통적인 방법에 비해 토익 독해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교수-학습 상황에 따라 협동학습을 교실 외 활동으로 확대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 4.1.6 토익수업 효과

〈표 8〉 토익수업 효과

설문문항	1	2	3	4	5	M	SD
28. 토익수업이 나의 전반적인 영어 실력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830).	5	20	46	25	4	3.03	0.895
27. 토익수업을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늘어났다(.824).	9	33	42	14	2	2.68	0.910
29. 토익 수업이 나의 영어 독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803).	5	16	47	28	4	3.10	0.887
26. 토익수업을 통해 영어에 대한 흥미가 늘어났다(.792).	12	33	41	12	2	2.59	0.920
32. 토익수업을 통해 나는 자기주도적인 영어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768).	7	27	47	17	2	2.81	0.869
31. 토익수업을 통해 나는 영어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761).	6	24	48	19	3	2.91	0.881
30. 토익수업을 통해 나는 스스로 영어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게 되었다(.753).	6	24	48	19	3	2.89	0.871
33. 토익수업에 나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613).	7	21	50	18	4	2.90	0.902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토익수업 효과에서 8개 문항에서 “보통이다”에 40%가 넘고, 전반적으로 2개 문항을 제외한 6개 문항에서 “그렇다”보다 “그렇지 않다”가 더 높았다. 반면에 “토익수업이 나의 전반적인 영어 실력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28번)에서는 “그렇지 않다”(25%)보다 “그렇다”(29%)가 약간 높았다. “토익 수업이 나의 영어 독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29번)에서는 “그렇지 않다”(21%)보다 “그렇다”(32%)가 약간 높았다.

신광인과 오치성(2012)은 토익수업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LC에 집중한 수업을 할 필요가 있으며, 비단 토익수업의 구성뿐 아니라 여타 영어 관련 과목도 토익 수업이 이루어지는 학년에 맞추어 청취 관련 과목을 배정하는 것이 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연구대상 대학이 1학년에 토익 수업과 함께 영어회화를 필수과목으로 함께 배정한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다.

#### 4.1.7 영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표 9〉 영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설문문항	1	2	3	4	5	M	SD
36. 나는 나의 미래를 위해 영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829).	2	5	28	41	24	4.02	0.934
39. 나는 영어를 배워서 외국인과의 의사소통하고 싶다.(.795).	2	3	14	30	51	4.24	0.962
37. 나는 영어를 잘하고 싶다.(.795).	2	1	11	24	62	4.42	0.880
38 나는 계속해서 영어를 배우고 싶다.(.734).	5	6	31	32	26	3.69	1.073
35. 나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영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654).	2	5	28	41	24	3.80	0.932
34. 나는 나의 직업을 위해 영어를 공부하고 싶다(.583).	5	13	23	39	20	3.57	1.102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영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서 평균비교는 “나는 영어를 잘하고 싶다”(37번)( $M=4.42$ ), “나는 영어를 배워서 외국인과의 의사소통하고 싶다”(39번) ( $M=4.24$ ), “나는 나의 미래를 위해 영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36번)( $M=4.02$ )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4.00 이상을 나타내는 문항이 절반을 넘었고, 나머지 절반도 평균 상으로는 3점대 후반 대를 보여줬다.

## 4.2 전공 계열별 토익에 대한 인식의 차이

두 번째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인문계열( $n=209$ )은 경상대학( $n=117$ ), 인문사회대학( $n=77$ ), 법학대학( $n=15$ )등으로 구성되었고, 이공계열( $n=171$ )은 공과대학( $n=106$ ), 자연과학대학( $n=13$ ), 치과의학대학( $n=52$ )등으로 구성되었다. 인문계열( $n=209$ )과 이공계열( $n=168$ )의 토익에 대한 인식 차이를 비교하여 두 집단의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10> 전공 계열별 토익에 대한 인식의 차이

	인문계열 (N=209)		이공계열 (N=168)		$t$	$p$
	Mean	SD	Mean	SD		
토익의 실용성	3.98	.58	4.07	.66	-1.407	.160
토익 영어실력 향상	3.49	.59	3.58	.67	-1.284	.200
토익 학습방법	3.17	.53	3.42	1.99	-1.570	.117
토익 기초영어 실력	3.86	.63	3.66	.69	2.495	.013
토익점수 향상	3.15	.32	3.15	.43	-.142	.888
토익수업 효과	2.78	.66	2.92	.70	-1.786	.075
영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3.94	.74	4.07	1.43	-.991	.322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공 계열별 토익에 대한 인식의 차이의 단편적인 평균 비교에서 인문계열( $n=209$ )은 토익의 실용성( $M=3.98$ ), 토익의 토대가 되는 기초영어 실력( $M=3.86$ ), 영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M=3.94$ )이 높게 나타났다. 이공계열( $n=16$ )에서는 토익의 실용성( $M=4.07$ ), 영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M=4.07$ )에서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평균은 이공계열이 인문계열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토익수업 효과는 인문계열( $M=2.78$ ), 이공계열( $M=2.92$ )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평균의 차이

(.14)가 낮는데 이공계열이 약간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토익 점수 향상에서는 인문계열과 이공계열이 각각 3.15로 같은 평균을 보여줬고, 평균의 전반적인 흐름에 비해 전반적인 값들이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줬다. 토익의 토대가 되는 기초영어 실력에서 인문계열( $M=3.86$ ), 이공계열( $M=3.66$ )의 평균의 차이(.20)가 나타났고, “영어 실력 평가를 위해서 토익이 아닌 다른 영어 평가가 필요”(17번),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토익 공부 이외에 다른 영어공부를 병행”(6번), “단기간에 토익점수 향상을 위해서는 영어의 기본실력이 필요”(22번)등 3개 문항에서 인문계열이 더 잘 인식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토익의 토대가 되는 기초영어 실력( $p=0.13$ )에서 체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3 토익 점수별 인식의 차이

세 번째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영어학습자들의 토익에 대한 설문 대상으로 참여했던 총 380명 중에서, 1학년이 253명이라서 토익 점수가 없는 학생이 177명이고, 이를 제외한 203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토익 점수별 인식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토익점수 600점을 기준으로 상위그룹( $n=67$ )과 하위그룹( $n=136$ )으로 구분하고, 토익에 대한 인식차이를 비교하여 두 집단의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11>에서 보는바와 같이, 인식 요인별 평균은 상위그룹에서 영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M=4.11$ ), 토익의 실용성( $M=4.00$ ), 토익의 토대가 되는 기초영어 실력( $M=3.9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위그룹에서는 토익의 실용성( $M=4.02$ ), 영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M=3.90$ ), 토익의 토대가 되는 기초영어 실력( $M=3.79$ )순으로 나타났다.

토익수업 효과에서는 상위그룹( $M=2.97$ ), 하위그룹( $M=2.81$ )의 각각의 그룹에서 가장 낮은 평균을 보여줬다. 토익 수업이 나의 영어 독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29번)에서는 그렇지 않다(21%)보다 그렇다(32%)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토익 점수별 인식의 차이

	상위그룹 (N=67)		하위그룹 (N=136)		<i>t</i>	<i>p</i>
	<i>Mean</i>	<i>SD</i>	<i>Mean</i>	<i>SD</i>		
토익의 실용성	4.00	.77	4.02	.59	.225	.822
토익 영어실력 향상	3.46	.73	3.53	.62	.694	.488
토익 학습방법	3.19	.56	3.40	2.19	.760	.448
토익 기초영어 실력	3.93	.74	3.79	.63	-1.418	.158
토익점수 향상	3.27	.36	3.15	.33	-2.475	.014
토익수업 효과	2.97	.75	2.81	.65	-1.558	.121
영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4.11	.79	3.90	.71	-1.937	.054

단편적인 평균 변화상으로는,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이 토익과 영어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토익점수 향상 요인을 설명하는 문항 중에서, “토익공부는 장기간에 꾸준히 해야 점수를 올릴 수 있다”(9번)는 “그렇지 않다”(17%), “그렇다”(54%)로 답변하는 것으로 보아 상하그룹 모두 토익점수 향상을 위해 단기간 보다는 장기간 꾸준히 해야 점수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토익공부를 할 때 그룹스터디를 해야 한다”(11번)에서도 “그렇지 않다”(16%), “그렇다”(48%)로 답변하는 것으로 보아 상하그룹 모두 토익점수 향상을 위해 그룹스터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토익점수 향상( $p=.014$ ) 요인을 제외하고는 토익 상, 하위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V. 결론

### 5.1 연구요약

연구를 실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소재 3개 대학교와 순천 소재 1개 대학교에서 총 4개 대학교 380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380명 학생들의 남녀성별 비율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남학생은 200명(53%), 여학생은 180명(47%)이었고, 전체 학생들 중 절반 정도의 197명(52%) 대학생들이 토익 응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토익 응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평균 응시 회수는 약 3회였으며, 평균 점수는 556점 정도였다. 토익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의 설문 응답을 바탕으로 설문 문항에 대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고, 총 39개의 문항에서 7개의 요인을 추출하였고, 추출된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토익의 실용성, 토익과 영어 실력 향상, 토익 학습방법, 토익의 토대가 되는 기초영어 실력, 토익점수 향상, 토익수업의 효과, 영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등 7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연구 질문인 영어학급자들의 전공 계열별 토익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문계열( $n=163$ ), 이공계열( $n=168$ ) 두 집단의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았다. 세 번째 연구 질문인 토익점수 600점을 기준으로 상위그룹( $n=67$ )과 하위그룹( $n=136$ )으로 구분하고, 토익에 대한 인식 차이를 비교하여 두 집단의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았다.

요인 1은 대학생들이 토익 시험을 자신들의 취업하는데 도구, 사회적 요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문항(1, 2, 3, 4, 15, 18, 20)들은 총 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인 2는 토익과 영어실력 향상과트로서, 토익이 영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요인 2의 문항(5, 13, 14, 23, 25)들은 토익은 열심히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시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인 3은 토익 학습방법으로 문항(7, 16, 19, 24)들은 총 4개 문항이다. 토익 학습방법에서는 4개 문항 중에서 반반으로 나뉘었다. 토익 응시횟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았으며, 토익은 문제패턴 연습만 많이 하면 고득점, 토익공부는 대학 입학 후 빨리 시작 등 두 문항에서 높게 나타났다. 요인 4는 토익의 토대가 되는 기초영어 실력으

로 문항(6, 17, 22)들은 총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어 실력평가를 위해서 토익이 아닌 다른 영어평가가 필요 문항에서 대학생 대부분이 영어실력 평가를 위해서, 토익에 대체할 수 있는 영어평가가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서 토익공부 이외에 다른 영어공부도 병행하고 또한 단기간에 토익점수 향상을 위해서 영어의 기본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낸다. 요인 5는 토익점수 향상으로 문항(8, 9, 10, 11, 12)들은 총 5개 문항이다. 만족스런 토익 시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준비보다는 장기적인 준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문항 8, 9). 토익 학습법에서는 학원 수강이나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룹스터디의 효과성을 보여주고 있다(문항 10, 11, 12). 요인 6은 토익수업 효과로 문항(26, 27, 28, 29, 30, 31, 32, 33)으로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8개 문항에서 “보통이다”에 전반적으로 높게 나왔고, “토익수업이 나의 전반적인 영어 실력에 도움”, “토익 수업이 나의 영어 독해능력 향상에 도움” 등 2개 문항을 제외한 6개 문항에서 “그렇다” 보다 “그렇지 않다”가 더 높았다. 요인 7은 영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으로 문항(34, 35, 36, 37, 38, 39)들로 총 6개 문항이다. 평균 4.00 이상을 나타내는 문항이 절반을 넘었고, 나머지 절반도 평균 상으로는 3점대 후반 대를 보여줬다. 특히 “영어를 잘하고 싶다”와 “영어를 배워서 외국인과 의사소통하고 싶다”(39번)에서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인문계열( $n=163$ )과 이공계열( $n=168$ )의 토익에 대한 인식 차이를 비교하여 두 집단의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는데, 전체적인 평균은 이공계열이 인문계열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토익 수업효과는 인문계열( $M=2.78$ ), 이공계열( $M=2.92$ )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토익 점수향상에서는 인문계열과 이공계열이 각각 3.15로 같은 평균을 보여줬다. 토익기초영어에서 인문계열( $M=3.86$ ), 이공계열( $M=3.66$ )의 평균을 나타냈고, 계열별 유의한 차이를 보여줬다.

세 번째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토익점수 600점을 기준으로 상위그룹( $n=67$ )과 하위그룹( $n=136$ )으로 구분하고, 토익에 대한 인식 차이를 비교하여

두 집단의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평균변화는 상위그룹에서 영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M=4.11$ ), 토익의 실용성( $M=4.00$ ), 토익 기초영어 실력( $M=3.93$ )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위그룹에서는 토익의 실용성( $M=4.02$ ), 영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M=3.90$ ), 토익 기초영어 실력( $M=3.79$ ) 순으로 나타났다. 토익수업 효과에서는 상위그룹( $M=2.97$ ), 하위그룹( $M=2.81$ )의 각각의 그룹에서 가장 낮은 평균을 보여줬다. 단편적인 평균 변화상으로는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이 토익과 영어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토익점수 향상( $p=.014$ ) 요인을 제외하고는 상, 하위그룹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5.2 교육적 함의

대학생들이 토익을 취업 수단으로 인식하는 이상, 실질적인 영어능력 향상이라는 목적으로 개발된 토익수업 및 교재보다는 대학생들의 토익에 대한 인식을 만족시키는 내용을 반영하는 수업과 교재를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영어회화 수업을 일상 생활영어를 위주로 진행하지 말고 영어 프레젠테이션, 영어 토론에 대한 훈련을 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거나 토익 스피킹이나 OPIC과 같은 말하기와 관련된 수업을 활용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대학생들의 요구도 충족시키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선행 연구들은, 연구의 진행 관점이 교수자나 연구자 측면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즉, 토익에 응시하는 영어 학습자들의 관점에서 토익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토익과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자 혹은 효과적인 토익 학습 환경을 개발하려는 외국어 교육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첫째, 토익의 실용성 요인분석에서, 토익은 사회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치는 것(2번)와 토익성적 제출이 취업에 유리(18번)에서는 똑같이 87%로 가장 높게 나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토익성적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과 같은 성공적인 토익 학습과 학습에 도움을 주는 구체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신미영, 2013). 그러므로 현 상황에서 대학 교양필수과목으로

서의 토익수업의 실효성이나 수업 효과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해보는 것은 교수자나 행정·관리자 모두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둘째, *토익 영어실력 향상* 요인분석에서, 토익은 영어능력과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토익점수가 높다는 것은 영어에 대한 기본능력이 있다는 것(14번)에서는 63%나 가장 높게 답하였다. 토익독해의 경우 500미만의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문법과 어휘를 다지는 방향으로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500점 이상의 학생들은 이미 기본적인 문법적 지식은 가지고 있으므로 독해능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교과과정을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토익 학습방법* 요인분석에서, “토익은 문제 패턴 연습만 많이 하면 고득점을 얻을 수 있다”(16번)과 “토익 공부는 대학 입학 후 빨리 시작해야 한다”(7번)에서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각각 66%, 62%로 높게 나타났다. 토익 교수자가 대학생들을 지도할 때에는 토익의 출제 패턴과 경향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시키고, 모의토익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서 자주 실전문제를 풀어 본다면 토익성적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넷째, *토익의 토대가 되는 기초영어 실력* 요인분석에서, “영어 실력향상을 위해서 토익 공부 이외에 다른 영어공부를 병행”(6번)과 “단기간에 토익점수 향상을 위해서는 영어의 기본실력이 있어야 한다”(22번)에서 각각 66%, 67% 긍정적 답변이 월등히 우세하게 집계되었다.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서 토익공부 이외에 다른 영어공부도 병행하고 또한 단기간에 토익점수 향상을 위해서 영어의 기본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낸다.

다섯째, *토익점수 향상*요인분석에서, “토익 공부는 장기간에 꾸준히 해야 점수를 올릴 수 있다”(9번)에서는 55%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대답한 경우로 봐서 대부분 학생들이 토익공부는 단기간 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해야 점수를 올릴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성취하기 원하는 토익성적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요소 중 하나가 토익 학습시간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토익성적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시간을 학습에 할애하여야 하며, 일정 수준의 학습을 하지 않으면 토익성적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성적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하루에 일정한 학습시간을 필요로 한다.

토익 학습시간이 늘어날수록 효율적인 토익 학습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생들과 허심탄회하게 학습전략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여섯째, *토익수업 효과* 요인분석에서, “토익수업이 나의 전반적인 영어 실력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28번)과 “토익 수업이 나의 영어 독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29번)에서는 “그렇지 않다” 보다 “그렇다”가 약간 높았다. 설문지 응답자들이 토익수업 내용에 대하여 신뢰를 못하는 상황이다. 좀 더 대학생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취업 수단으로 생각하는 토익성적 향상에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어야 하리라 사료된다. 취업을 위한 교양영어 토익수업에서 학생들의 토익점수를 향상시키는 교수법이 개발되고 효과적인 토익 학습활동이 수행된다면 참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토익교수 담당자인 대학의 교수자들이 효과적인 토익수업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정행, 2010).

일곱째, *영어를 위한 일반적인 인식* 요인분석에서, “영어를 잘하고 싶다”(37번)와 “영어를 배워서 외국인과 의사소통하고 싶다”(39번)에서는 설문지 응답자들의 반응이 “그렇다”에 각각 86%, 81%로 높은 응답을 하였다. 영어를 배워서 외국인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토익 듣기수업과 영어회화 수업을 접목시킨 청취과목을 배정하는 것도 좋은 효과가 나리라 사료된다.

### 5.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C 대학교, K 대학교, S 대학교 세 곳과 순천에 소재한 J 대학교 한 곳에서 대학영어 교양강좌 수강생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므로, 연구결과를 전국 대학생 영어학습자에 일반화할 수 없는 한계점을 지닌다. 보다 대표성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향후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의 외적 타당도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정기 TOEIC 성적으로 상하집단을 나누었지만, 연구 참여자 모두가 동일한 시험을 응시한 것이 아니기에, 명확하게 상하집단이 구분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 5.4 후속 연구 제언

한국 대학생들의 토익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결과가 기술적인 측면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토익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들의 인식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의 토익에 대한 인식은 어떤 구인들로 이루어져 있고, 대학생들의 토익에 대한 인식 차이는, 대학생들의 토익 성적과 영어 학습의 동기부여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조사한다면, 대학생들의 토익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앞으로 연구논문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별, 학년별 한계가 있으므로 전공별과 같은 더 세분화된 대상의 실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토익 계열별, 점수별 토익수업이 토익 듣기와 독해에서 어떤 파트가 더 효과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의 연구도 외국어 교육에 발전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대학에서 실용성 교육이 더욱 힘을 얻어가는 시대이다.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논의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이미 실용성 교육의 강조와 더불어 대학 교양 필수 교과목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토익수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치며 개선해나가야 하는지도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다.

실제적으로 이런 연구결과가 의미 있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토익시험의 타당성과 신뢰도에 관한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 분석을 통해 첫째 좀 더 신뢰 있고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대학생이 실험에 참여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둘째, 토익공부에 사용된 시간, 영어에 대한 흥미도, 토익시험 경험 횟수, 계열별, 점수별 토익에 대한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가 필요했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먼저 연구에 참여자인 대학생들은 토익에 대한 인식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토익 학습방법을 설정할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대학생들이 토익을 영어 능력 검증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졸업 후 취직을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이기 뿐만 아니라, 토익은 사회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토익을 준비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많은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취업 준비와 승

진을 위한 영어능력 검증의 도구로 토익에 응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효과적인 토익 수업 개발과 토익 학습자들의 효과적인 학습 전략 개발을 위해서는 토익에 응시하는 영어 학습자에게 토익이라는 시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가 병행되어야 효과적인 토익 수업 및 학습전략 개발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토익에 관한 연구결과는 학습자들이 토익을 대하는 태도가, 영어능력 검증이라는 토익의 원래 목적과는 아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대학생들의 토익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향후 토익 수업 및 교재 개발과 관련하여 교수자나 연구자들에게 교수적인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학생들의 토익에 대한 인식 연구 외에도 토익점수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요인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며, 각 변인의 하위항목을 다양화한 항목별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토익과 관련된 영어능력에 대한 연구의 지평을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미영. (2007). *영어학습자의 학습전략 비교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인천.
- 김지혜. (2009). *영어몰입교육 사례 연구: 학습자 요구분석을 통한 목표의 재설정*.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서울.
- 김인철. (2005). 대학 교양영어 교육에서 사이버 교육을 통한 토익 활용 사례 연구. *영어학*, 15(4), 191-214.
- 나경희. (2010). 국내영어집중캠프 참여가 우리나라 대학생의 영어 능력과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영어영문학 연구*, 52(3), 151-171.
- 나경희. (2011). 영어 집중 캠프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영어 학습동기와 영어 성취도의 상관관계 분석. *영어영문학 연구*, 53(1), 159-177.
- 남정미, 김성애. (2009). 멀티미디어 활용 영어수업 사례 연구: 교양영어 교과목으로 온라인 토익수업의 학습효과. *새한 영어영문학회*, 51(1), 277-301.
- 맹경수. (2009). *영어 몰입 프로그램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인식 조사*.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서울.
- 박현숙, 최미옥. (2014). 대학생들을 위한 단기 집중 영어캠프가 토익점수 향상에 미치는 효과. *언어학 연구*, 30, 149-166.
- 성창섭. (2012).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의 TOEIC 응시에 대한 인식 연구. *언어과학*, 19(1), 119-130.
- 송정미. (2008). 영어캠프를 통한 몰입 교육 효과와 적용방안 연구. *언어학 연구*, 13, 109-125.
- 신광인, 오치성. (2012). 대학 교양필수과목으로서의 토익수업의 효과. *언어학 연구* 24, 125-137.
- 신동일, 김주연. (2010). 토익 수험자의 인식 연구. *영어영문학* 21 25(2), 126-157.
- 신미영. (2013). 대학생 토익 향상그룹과 하락그룹에 따라 나타나는 학습전략 양상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6), 465-485.



- 신희재. (2011). 교양영어프로그램에서 영문법교육의 필요성: 학습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현대영어교육*, 12(1), 158-176.
- 안경자, 이완기. (2012) 방학 중 초등 영어 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및 평가: 학생, 교사, 학부모의 관점에서. *초등영어교육*, 18(3), 179-209.
- 이남미, 강용구, 송해성. (2012). 과업중심의 소집단 협동학습을 통한 대학생들의 영어독해력 향상 방안. *영어교과교육*, 11(2), 105-127.
- 이동명, 홍광희, 황규홍. (2013). 한국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의 토익 응시에 대한 반응연구. *새한 영어영문학*, 55(2), 233-248.
- 이명관. (2011) 토익 독해 수업에서 문법 강조와 어휘 강조의 효과. *현대 영어영문학*, 55(2), 155-177.
- 이효웅, 박기표. (2003). TOEIC의 신뢰도와 타당도. *영어교육*, 58(4), 27-42.
- 정수선. (2001). 과업중심 학습의 듣기 교수모형 연구: 토익 듣기 부분을 중심으로.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숙희. (2014). Gigsaw 협동학습에 의한 토의·토론수업이 토익학습자에게 미치는 효과, 학습태도와 학습동기를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22(4), 181-206.
- 정행. (2010). 개정된 토익(NEW TOEIC)이 한국 대학생들의 영어 교수·학습에 미치는 역류효과. *영어영문학* 21, 23(3), 183-207.
- 주미란. (2012). 대학 신입생의 전공 및 학습 성과별 영어 학습동기와 학습 전략 연구. *영어영문학* 21, 25(3), 177-200.
- 주미진. (2009).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을 이용한 토익수업의 효과성 연구. *언어과학*, 16(2), 83- 102.
- 지순정, 이상도. (2009). 토익 점수분석에 따른 청해력과 독해력의 상관관계. *언어과학*, 16(1), 111-128.
- 최동석. (2002). 웹기반 영어평가 방식의 피드백 효과에 관한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인천.
- 한승호. (2007). 한국 대학생의 영어 학습 전략에 관한 연구. 미출간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대구.

- 홍영지, 이정민. (2011). 공학도 중심의 영어교육에 관한 기초연구: 공대생과 공대교수의 요구분석을 중심으로. *응용언어학*, 27(1), 131-165.
- Bardovi-Harlig, K. (2000). *Tense and aspect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Form, meaning, and use*. Oxford: Blackwell.
- Childs, M. (1995). Good and bad used of TOEIC by Japanese companies. In J. D. Brown & S. O. Yamashita, (Eds.), *Language testing in Japan*. Tokyo: JALT
- Hirai, M. (2002). Correlations between active skill and passive skill test scores. *Shiken: JALT Testing and Evaluation SIG Newsletter*, 6, 2-8.
- Shin, Y. H., & Seong, M. H. (2011). Effectiveness of college TOEIC courses based on teaching strategies. *Studies in Linguistics*, 21, 207-228.

### 〈부록 1〉

최근 5년간 연령별 토익 시험 응시자 현황(쿠키뉴스)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만 12세 이하	3,536	1,369	1,087	910	749
만13세 ~ 만18세	58,946	57,207	52,160	57,510	63,739
만19세 ~ 만29세	1,597,6 17	1,724,222	1,740,561	1,701,090	1,677,627
만30세 ~ 만49세	269,903	294,548	308,405	318,016	327,520
만50세 이상	6,377	7,341	7,797	8,348	8,762
합 계	1,936,3 79	2,084,687	2,110,010	2,085,874	2,078,397

### 〈부록 2〉

국가고시 토익 성적 이용현황(한국대학신문)

시험명	적용시기	기준성적	시행처
외교관후보자	2004년	870점	인사혁신처
5급공채	2005년	700점	인사혁신처
입법고시	2004년	700점	국회사무처
사법고시	2005년	700점	법무부
7급공채	2017년 예정	700점	인사혁신처

### 〈부록 3〉

#### 주요기업의 ‘탈 스펙’ 채용(세계일보)

기 업	입사 지원서에서 삭제한 항목
A자동차	사진, 외국어능력, 석·박사 표기, 전과 및 편입여부,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S기업	외국어 성적, IT활용능력, 해외경험, 수상경력, 업무 경험, 논문 내용 입력란
L기업	수상경력, 어학연수, 인턴, 봉사활동, 주민등록번호, 사진, 가족관계, 주소
D항공	신장, 학력, 병역사항, 해외유학
S은행, W은행,	금융자격증, 외국어 성적

〈부록 4〉

한국 대학생 영어 학습자들의 토익 인식에 관한 설문지

1. 학과 : \_\_\_\_\_
2. 학년 : \_\_\_\_\_
3. 성별 : 남 \_\_\_\_\_ 여 \_\_\_\_\_
4. 토익을 응시해 본 적이 있다\_\_\_\_\_ 없다\_\_\_\_\_
5. 토익을 응시해 본적이 있다면 응시 회수는? \_\_\_\_\_ 회
6. 토익 공부를 한 기간은 ? 6개월 미만( ), 약 1년( ), 약 2년( ), 약 3년 이상( )
7. 1일 평균 토익 공부시간은 ?  
 1시간 미만( ), 약 1시간( ), 약 2시간( ), 약 3시간( ), 약 4시간( ),  
 약 5시간( ), 약 5시간 이상( )
8. 가장 최근에 응시한 토익 시험의 점수대는?  
 400 미만( ), 500점대( ), 600점대( ), 700점대( ), 800점대( ), 900 이상( )

Part 1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에 해당하는 항목에 ○표 하세요. (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번호	질문 내용	1	2	3	4	5
1	토익은 취업을 하기 위한 수단이다.					
2	토익은 사회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치는 시험이다.					
3	토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4	토익은 문제 푸는 요령이 점수를 좌우한다.					

5	토익은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6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토익 공부 이외에 다른 영어공부를 병행해야 한다.					
7	토익 공부는 대학 입학 후 빨리 시작해야 한다.					
8	토익 공부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해야 효과적이다.					
9	토익 공부는 장기간에 꾸준히 해야 점수를 올릴 수 있다.					
10	토익 공부를 할 때, 그룹 스터디를 해야 한다.					
11	토익 공부는 학원의 도움이 필요하다.					
12	토익 공부는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13	토익은 영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14	토익 점수가 높다는 것은 영어에 대한 기본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15	토익 점수에 따라 졸업 후 사회적 지위가 달라진다.					
16	토익은 문제 패턴 연습만 많이 하면 고득점을 얻을 수 있다.					
17	영어 실력 평가를 위해서 토익이 아닌 다른 영어평가가 필요하다.					
18	토익 성적 제출이 미제출 보다는 취업에 유리하다.					
19	토익 준비를 위해서 토익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다.					
20	토익 점수는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가장 보편화된 시험이다.					
21	토익은 공인인증시험이기 때문에 영어 실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22	단기간에 토익 점수 향상을 위해서는 영어의 기본실력이 있어야 한다.					
23	토익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은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24	토익 응시 횟수가 많을수록 토익 점수가 높다.					
25	토익은 열심히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시험이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5=매우 그렇다.)

Part 2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에 해당하는 항목에 ○표 하세요.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번호	질문 내용	1	2	3	4	5
26	토익수업을 통해 영어에 대한 흥미가 늘어났다.					
27	토익수업을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늘어났다.					
28	토익수업이 나의 전반적인 영어 실력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29	토익수업이 나의 영어 독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30	토익수업을 통해 나는 스스로 영어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게 되었다.					
31	토익수업을 통해 나는 영어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					
32	토익수업을 통해 나는 자기 주도적인 영어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33	토익수업에 나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4	나는 나의 직업을 위해 영어를 공부하고 싶다.					
35	나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영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6	나는 나의 미래를 위해 영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7	나는 영어를 잘하고 싶다.					
38	나는 계속해서 영어를 배우고 싶다.					
39	나는 영어를 배워서 외국인과의 의사소통하고 싶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